

## 요약

스위스에서 중하위 소득 노년층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인 고령자 및 유족 보험(Old-Age and Survivors's Insurance) 추가지급 필요성이 대두됨. 2024년 3월,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기초연금 추가 지급안이 통과됨. 기초연금의 추가적인 지급 결정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 지출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스위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 스위스에서 중하위 소득의 노년층 생계 지원을 위한 공적연금인 고령자 및 유족 보험(Old-Age and Survivors's Insurance, 이하 '기초연금')<sup>1)</sup> 추가지급 필요성이 대두됨
  - 스위스 국민은 기초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은퇴 후 기초연금만으로는 은퇴 전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스위스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20세가 된 이후 은퇴 연령까지 기초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64세, 남성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스위스 노인 인구의 5명 중 1명은 빈곤하거나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스위스 노동조합(Swiss Trade Union Federation)은 중하위 소득 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연금 추가 지급안을 주장했고, 스위스의 중도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아 국민투표안으로 발의됨<sup>3)</sup>
    -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연금 수급자를 위해 추가적인 월별 연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공식적으로 반대했었음
-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기초연금 인상안이 결정됨<sup>4)</sup>
  - 2024년 3월, 스위스 유권자들의 58% 이상이 찬성하며 기초연금 인상안이 통과됨
    - 1948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 연금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며, 스위스 노동조합이 주장한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처음으로 수용됨<sup>5)</sup>

1) 스위스의 고령자 및 유족 보험은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스위스의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 의무가입 형태의 국가 고령자 보험 제도이며 모든 국민들이 빈곤하지 않게 노년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Swissinfo.ch(2023. 1. 23), "Thousands of retired Swiss seniors falling into poverty"  
 3) Swissinfo.ch(2024. 1. 25), "Will the right Swiss residents benefit from an extra monthly pension payment?"  
 4) Swissinfo.ch(2024. 3. 3), "Swiss vote: 'yes' to higher pensions, 'no' to retiring later"  
 5) Social Europe(2024. 7. 3), "Pensions in Switzerland: how a rise was won"

- 동시에 국민투표로 상정됐던 65세에서 66세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발의안은 유권자의 75%가 반대함
- 기초연금 인상안 승인에 따라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연 12회에서 13회로 매년 추가 지급될 예정임

○ 기초연금 인상안 결정에 따라 연금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sup>6)</sup>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연간 약 500억 스위스프랑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총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630억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추가적인 기초연금 지급안 결정으로 연간 40억에서 50억 스위스프랑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최대 연간 기초연금의 지급 규모는 1인 가구의 경우 2,450스위스프랑이 증가하여 31,850스위스프랑, 기혼 가구의 경우 3,675스위스프랑이 증가해 47,775스위스프랑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스위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기초연금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함<sup>7)</sup>

- 현재 기초연금의 재정 중 3/4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여금이고, 나머지 1/4 중 80%는 부가가치세와 도박세로, 그 밖의 1/4 중 20%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초연금 재정 마련을 위해 2024년 3월, 부가가치세율과 기초연금 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부가가치세를 8.1%에서 8.5%로 인상하고 급여에 대한 기초연금 기여금을 0.5% 인상하는 첫 번째 안과 급여에 대한 기초연금 기여금을 0.8% 인상하는 두 번째 안이 제안됨<sup>8)</sup>
- 스위스 정부는 지출 수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인상만으로 자원 조달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2024년 8월,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통해 13번째 추가 기초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금 인상을 통한 재정 마련 계획은 포기하기로 결정함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 스위스연방 전체 수익의 약 31.6%를 차지함<sup>9)</sup>
- 스위스 정부는 추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0.7%p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10월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
  -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8.1%에서 8.8%로 인상함에 따라 약 42억 스위스프랑의 자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1991년 이후 가장 큰 부가가치세 인상안<sup>10)</sup>이며 스위스 의회에 제출된 후 의무적 국민투표 결과, 55.1%의 찬성을 받아 통과됨<sup>11)</sup>

6) Swissinfo.ch(2024. 3. 3), "Swiss pension vote: what's at stake"

7) IPE(2024. 8. 15), "Switzerland to finance 13th month of pension with VAT increase"

8) Swissinfo.ch(2024. 3. 27), "Swiss government outlines proposal to fund '13th month' pension rise"

9) Geneva Business News(2024. 7. 15), "VAT in Switzerland: Implications and Insights"

10) 표준세율 6.5%였던 부가가치세를 1999년 1월, 7.5%로 인상함

11) VAT Calc(24. 10. 22), "Swiss VAT rise from 8.1% to 8.8% 2026"